

01 교회소식

부흥의 열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섬김의 은혜로 충만하여 전도에 힘쓰며 초 대교회처럼 부흥하고 있는 중국교구.

02 생명의 말씀

낮에 다니면 실족지 아니하리라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면 낮에 다니는 것과 같이 실족하지 않으며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03 기획특집

꿈을 이뤄주시는 은혜~

인천유나이티드 유스팀에 입단하게 되어 축구 선수의 꿈을 마음껏 이뤄갈 수 있게 된 손태훈 아동의 간증을 들어본다.

04 간증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주님을 영접한 뒤 치료받고 축복을 받아가는 인도 순일 꾸마르 성도와 0자 다리가 퍼지는 권능을 체험한 이승화 집사의 간증.

# 만민뉴스

제863호 2018년 11월 11일(주간)

##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난 행복과 기쁨을 전해요!”

## 전도에 힘쓰며 사랑과 섬김으로 부흥하는 중국교구



▲ 지난 10월 12일 금요일예배 시 강단 헌화를 드리며 영육 간에 많은 축복을 주시고 2배가의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다.

우리 교회는 32개 교구 외에도 해외 성도들을 위한 해외교구와 중국 성도들을 위한 중국교구가 있다. 그중 중국교구는 교포들로 구성된 1교구와 한족으로 구성된 2교구로 나뉘어 있는데, 올해 새신자만 해도 110여 명이 늘어나는 부흥을 이루었다.

###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니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중국교구 부흥의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일까?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기도를 통해 각종 질병을 치료받고 문제 해결의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이다.

이만창 집사(43세-여)는 “8년 전까지만 해도 악한 영의 시달림에서 벗어나고자 무당을 찾았지만 많은 돈을 허비했을 뿐, 다른 교회를 다녀 보아도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민중앙교회를 다니면서 당회장님께 기도받고 치료되었어요. 남편도 전도되어 천식을 치료받고, 심한 허리디스크로 인해 진통제로 사셨던 시어머니도 기도받고 깨끗이 치료받으셨지요”라고 간증했다. 이처럼 큰 은혜를 체험한 그녀는 매일같이 전도하고 거의 매주 새신자를 등록시켜 성도들에게 영적 도전을 주고 있다.

영혼의 갈급함 속에 참된 교회를 찾던 중 우리 교회로 인도받은 김성옥 집사(67세-여)는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당회장님의 설교 말씀은 참으로 꿀맛 같았고 기쁨에 단비를 맞듯 저로 하여금 희열이 넘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회장님의 기도로 저는 빈혈, 신장질환, 심장병, 위장병을, 언니는 교통사고 후유증을, 시댁 조카딸은 우울증을 치료받았습니다. 제 여동생은 심근경색으로 인해 위독한 상황이었지만 당회장님의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기도로 살아났지요”라고 고백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지만 타향살이의 고단함에 지쳐 있던 중, 참된 행복을 얻은 이들도 있다.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뒤 낯설고 언어도 통하지 않아 외롭고 힘겨운 생활을 하던 중 우리 교회에 온 푸안제 집사(37세-여)는 “친정집에 온 기분이었어요. 주의 종님들과 한족이나 교포들이 사랑으로 섬겨주시니까 너무 좋았고, 설교 통역을 듣다보니 한국어도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교회와 목자를 만난 행복을 한족들에게 전해 올해에만 9명을 등록시켰다.

### 일꾼들의 헌신으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중국교구의 부흥에는 주의 종들의 뜨거운 영혼 사랑과 더불어 일꾼들의 수고와 헌신을 빼놓을 수 없다. 중국교구 일꾼들은 어찌하든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고자 새신자 관리와 심방에 정성을 쏟고 있다.

특히 구역장단은 토요일만큼은 일을 하지 않고 구역예배와 전도, 심방에 집중하며, 주일에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과 행복을 줄까, 한 주 동안 쌓인 피로를 풀어줄까 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능부 소속 남성 반주단 및 중창단, 여성 중창단 및 율동단은 모든 행사 때마다 준비 찬양과 특송을 담당한다. 남·여 예배부는 모임 장소에 온 성도들을 반갑게 맞아주며, 행사부는 장소를 각종 소품으로 아름답게 장식하고, 봉사부는 맛있는 점심국수를 준비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린다. 새신자관리부는 새신자들에게 예배 자리를 안내하고 새신자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한다. 특히 매달 열리는 생일 파티 때에는 선물과 더불어 춤추고 찬양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사랑과 섬김에 감동받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과 환자기도를 통해 권능을 체험한 새신자들은 지인들을 전도하여 교회에 함께 나오니 이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부흥의 열매를 날로 더해 주고 계시는 것이다.



▲ 지난 10월 28일, 주일 대예배 후 중국교구(교구장 황금란 전도사)에서는 생일 축하 행사를 가졌다. 행사부와 봉사부의 수고로 아름답게 꾸며진 모임 장소에서 예능부의 준비찬양 인도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생일자뿐 아니라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시리즈 4

# 낮에 다니면 실족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 요한복음 11:9 -

“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소원에  
무조건 응답하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길을 가지 못할 때는 책망하시고  
매를 때리기도 하시며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지요.  
빛 가운데 거하면 범사에 형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부모가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면 책망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엄히 책망하고 때로는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길을 가게 할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소원에 무조건 응답하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길을 가지 못할 때는 책망하시고 매를 때리시기도 하시며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빛 곧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낮에 길을 다니는 사람과 같아서 실족하는 일이 없지만 어두운 밤에 다니면 실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함으로 실족하지 않고 범사에 형통한 삶을 영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온전한 빛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낮이 열두 시가 아니냐’ 하신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낮 12시는 정오로서 가장 밝은 대낮 곧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이지요.

영적으로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온전한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빛은 어두움이 전혀 없으신 영원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전깃불이 들어오기 전에는 밤길이 너무 어두워서 달빛에 의지해 길을 다녀야 했습니다. 더구나 달이 보이지 않는 그믐께에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지는 일들이 허다했지요. 하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은 동네가 한눈에 들어오고 빛 가운데로 다니니 넘어지거나 실족할 염려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면 낮에 다니는 것과 같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2. 빛 가운데 거함으로 실족지 않고 범사에 형통함을 받으려면

### 1) 구원에 관한 분야

사람이 태어나서 아무리 부와 권세를 누리고 산다 해도 결국에는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됩니다(시 90:10). 세상에는 부귀영화와 건강, 가정의 평안 등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누리고 사는 사람도 드물지만, 혹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해도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참으로 허무한 일입니다(약 4:14).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기록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느껴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부러울 것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았기에 죽어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잠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죽어서는 구원을 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었지요.

이처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전도하다 보면 예전에는 교회에서 성가대를 했거나 주교사를 했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일꾼과 불목하여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녕 하나님을 믿는 참믿음이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지요. 스스로 믿음이 있는 줄로 알았지만 빛 가운데 거한 것이 아니었기에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 상에서 빛 가운데 거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며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어찌하든 빛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며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으므로 항상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벧전 5:8).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음의 악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씻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온전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영과 혼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7호선 남구로역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4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자녀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독서 우송료만은 정기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과 몸이 흠 없게 보전되어야 찬란한 빛의 옷을 입고 주님을 뵈 수 있습니다(살전 5:23).

2) 질병에 관한 분야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오면 구원은 물론,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로 인함이며, 둘째는 과로하거나 당연히 지켜야 할 육의 질서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신경성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함이며, 넷째는 원수 마귀에 의한 경우이지요.

이처럼 모든 질병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게 살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통회자복함으로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을 헐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늘로부터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이 주어져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사 53:5).

이와 더불어 병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의 행함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이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귀신들린 딸이 치료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여인은 자신을 개에 비유하시는 말씀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더욱 겸비한 모습으로 “주여 옹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의 겸비한 고백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즉시 여인은 응답을 받게 되지요.

또한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면 더욱 강건함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고, 온 집에 충성했습니다(민 12:3, 7). 이처럼 빛 가운데 거했기에 120세의 나이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아 행할 때 빛이 임하게 되며 그 빛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고 항상 복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사 58:7-8).

3) 사업터, 일터에 관한 분야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 타국에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형통했던 것을 봅시다(창 39장).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에는 그 성실함을 인정받아 가정 총무로 세워지지요. 그 뒤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빛 가운데 행하니 실족하지 않습니다.

감옥의 모든 제반 업무가 맡겨져 결국 요셉은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 없던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국무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지요. 환경과 조건이 열악하다 해도 빛 가운데 정도를 좇으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형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환경이나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행할 때 그 길을 인도받아 실족하지 않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지요(잠 3:6).

가령, 가게를 내기 위해 적합한 장소를 놓고 기도하던 중 좋은 장소가 나타나면 이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 단정 짓고 급히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들고 생각에 맞기에 진행한 것이므로 오히려 사단이 송사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마음에 들었음지라도 반드시 돌아가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혹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내 마음에서 돌이켜야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에게 더 크고 풍성한 것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했듯이,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니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을 믿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하지요.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야 합니다. 가령, 친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보증을 서 달라 한다든지 또는 믿음의 형제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일은 내 유익을 구하는 일이고, 상대를 힘들게 하는 어두움의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사랑은 내 유익보다 먼저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해도 상대의 유익을 구해 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의 마음으로 변화되었을 때 비로소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오의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니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가정의 화목을 이루기 위한 분야

이혼하는 경우, 대부분 감정이 엇갈리고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랑은 나를 희생하는 것이며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생명도 줄 수 있는 것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육적인 사랑을 했기에 처음에는 사랑을 나누었던 부부라 해도 결국 미움만 남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라 해도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미움의 감정으로 뒤덮여 있던 여인이 있었지요. 그러니 부부가 만나기만 하면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섬기되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말씀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취 보니 온갖 어두움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또한 추하고 더러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과,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할 때에 비로소 나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기도와 금식으로 비진리를 벗어 나가니 자신을 힘들게 했던 남편이라도 사랑할 수 있었고, 오히려 남편에게 그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까지 할 수 있었지요. 결국 남편이 마음을 돌이켜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었지만 빛이 임함으로 미움이 변해 사랑이 되고 감정이 녹아 용서가 되니 어두움이 물러가고 행복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밝은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미움을 사랑으로,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며 강박한 마음을 녹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3장 13~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습니다. 신속히 어두움의 일을 벗어 버리고 오직 빛의 갑옷을 입어 범사에 형통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천유나이티드 유스팀에 입단하게 되었어요!”

손태훈 아동 (초등 6학년)

2018년 8월, 저는 인천유나이티드 유스팀에 합격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구 유망주들을 양성하는 인천시의 유소년 축구팀인데, 7월에 두 번의 테스트가 있었지요. 다른 친구들과 달리 축구를 시작한 지 2년이 채 안되었던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간절히 받은 후 테스트 경기에 임했습니다. 이후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다른 축구팀 감독님들이 제 경기를 보시고 인천유나이티드 유스팀 감독님에게 적극 추천해 주시고, 프로선수로 가는 고등학교 선수만 관여하시는 인천 에이전트님도 처음으로 초등학교 선수인 저를 추천해

주셨다고 하지요. 10월 5일 정식으로 계약하였고, 저는 당회장님의 기도로 너무나 가고 싶었던 팀에 입단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인천유나이티드 유스팀이 소속되어 있는 중학교에 들어가 마음껏 축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명시 인근 초등학교팀 중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프로 유스팀에 입단한 것이 제가 처음이라는 말에 더욱 감사했지요.

제 꿈은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당회장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랑해요!





## “주님을 영접한 뒤 많은 질병과 장티푸스를 치료받고 축복받아갑니다”

순일 꾸마르 성도 (27세, 인도 델리만민교회)

전통적인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성장하면서 늘 몸이 아파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질병으로 늘 많은 약을 달고 살았으며 죽음의 문턱까지 간 적도 있었지요. 약물을 자주 꾸다 보니 편히 잘 수 없었고, 칼을 옆에 두고 자거나 힌두 경전을 읽는 등 주술적인 방법을 써보았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3년 여름, 제가 너무 아프고 힘든 때에 회사 친구(수바쉬)가 자기 교회를 소개해 주며 그곳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기에 낯생 처음 교회에 갔지요. 델리만민교회 담임 김상휘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대해 주시니 매우 좋았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한 뒤, 교회에 다니면서 주일 성수와 심일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질병이 치료되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악몽으로부터도 해방되었지요.

월급도 인상되어 형편 상 따로 떨어져 살던 가족과 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 신앙생활도 함께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던 저에게 이렇듯 많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배는 물론 다니엘철야에 참석하여 기도하며 교회의 굶은일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토요일이면 성전 청소를 하고 주일

에도 열심히 봉사하며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지요.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크게 체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입맛이 떨어지고 구토, 설사에 40도가 넘는 고열과 두통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전염병인 장티푸스였습니다.

이에 담임 목사님한테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받아 병세는 호전되었지만 온전해지지 않자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4일 동안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졌고, 급기가 기력마저 너무 떨어져 서 있거나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었지요. 결국 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설교를 들으며, 치료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았지만 믿음을 갖지 못하고 머리에 지식으로만 담아뒀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세상을 의존했던 것을 회개하고는 믿음으로 계속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았습다. 그러자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두통과 열이 모두 사라지더니 이후 한국에 기도제목을 보내 3월 30일, 금요일아침에 때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은 뒤에는 완전히 치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로 저는 믿음이 성장했을 뿐 아니라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입니다. 학교에서 남자 짝꿍이 책상 금을 넘어왔다고 난로에 때는 굵은 장작으로 장난삼아 제 다리를 때렸는데, 그날부터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였습니다. 잘 걷지 못해 엄마한테 업혀 학교에 갈 때도 있었고 화장실에 갈 때면 벽을 짚고 다니곤 하였지요. 침도 맞아보고 쑥뜸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나이가 들면서 다리는 점점 휘어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친척이 집에 놀러와 사진을 찍어 주었는데 제 다리가 O자로 휘어진 것입니다.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 ‘내가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잠을 잘 때는 끈으로 다리를 묶어도 보고 무거운 물건으로 눌러놓기도 했지만 아프기만 하고 효과가 없었지요. 걸음도 잘 걷지 못했고 비가 오기 이틀 전부터는 통증이 더 심해져 다리를 옹크린 채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러던 2006년, 어머니의 전도로 만민중앙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았는데 그 뒤로 다리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 비가와도 상관없이 없었지요(사진 1).

2018년 2월 18일, 당회장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각자 준비한 손수건에 권능의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행 19:11~12). 저는 ‘하나님 권능으로 다리가 쪽 퍼지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손수건 케이스에 제 사진을 넣어 기

도를 받았습다. 그리고 바쁜 중에도 ‘사랑장’, ‘팔복’ 등 당회장님의 설교를 들으며 변화되고자 힘쓰고 항상 기뻐하고자 노력하였지요.

5월 13일 주일, 교회에 가기 위해 치마 정장을 입었는데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웬지 예뻐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제 다리가 퍼졌다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지요(사진 2).

얼마 뒤 일터에서 바지를 입고 근무하던 중, 예전과 달리 무릎에서 잘록하게 달라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아, 내가 O자 다리 치료를 위해 기도 받았지!’라는 생각이 떠올라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다리가 쪽 퍼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요. 이처럼 제 다리가 쪽 퍼진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한평생 간절했던 소원에 응답해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O자 다리가 쪽 퍼져 주변에서 기적이라고 해요!”

이승화 집사 (48세, 중국 1교구)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2)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광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73-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7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선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충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리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9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창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광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7-001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휴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자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자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자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평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자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자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자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자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50번길 26,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안산자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역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자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자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설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자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421-0899, 010-8927-2073
- 일산자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8 ☎031)905-2419, 010-2352-8336